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소식지



Dankook University Medical College News

제3호

2017년 2호

www.dankook.ac.kr/web/med

2017년 8월 31일 (목요일)



창간 2016년 9월 1일 발행인 김재일 편집인 홍승필, 김혜영 편집기획 의학교육실

주소 충남 천안시 동남구 단대로 119 전화 041.529.6036 팩스 041.559.7940 투고 12170919@dankook.ac.kr

목차

의과대학

03

- ... 인사동정
- ... 학교행사

교수동정

08

- ... 대외활동
- ... 연구년인사

의학교육

14

- ... 단국칼럼
- ... 주요소식
- ... 교육안내

학사일정

19

학생소식

20

- ... 기획기사
- ... 동아리소식

의과대학 : 인사동정

신임교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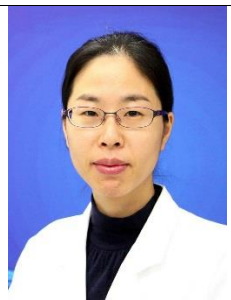
[2017년 상반기]

강미일 	전공 약력	류마티스내과학 2004 년 2 월 20 일 건양대학교 의학과 졸업 2009 년 2 월 18 일 건양대학교 대학원 내과학 의학석사 학위 취득
김동민 	전공 약력	심장혈관내과(부정맥) 2002 년 2 월 22 일 단국대학교 의학과 졸업 2006 년 8 월 18 일 단국대학교 대학원 내과 의학석사 학위 취득
김상윤 	전공 약력	영상의학(근골격계) 2005 년 2 월 28 일 제주대학교 의학과 졸업 2009 년 8 월 31 일 단국대학교 대학원 영상의학과 의학석사 학위 취득
김현석 	전공 약력	성형외과(유방재건/화상재건/수부재건) 2005 년 2 월 25 일 고려대학교 의학과 졸업 2016 년 2 월 25 일 고려대학교 대학원 성형외과학 의학석사 학위 취득 2017 년 현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성형외과학 의학박사 학위 취득중

의과대학 : 인사동정

신임교원

[2017년 상반기]

방기배	전공	내과학(소화기)
	약력	2005 년 2 월 18 일 단국대학교 의학 학사 졸업 2014 년 2 월 25 일 성균관대학교 의학전공 의학석사 학위 취득
유원상	전공	내과학(내분비내과학)
	약력	2004 년 2 월 28 일 단국대학교 의학 학사 졸업 2008 년 8 월 31 일 단국대학교 대학원 내과학 의학석사 학위 취득 2017 년 현재 단국대학교 대학원 의학박사 학위 취득중
이정배	전공	직업환경의학(직업성질환)
	약력	2003 년 2 월 27 일 차의과대학교 의학 학사 졸업 2014 년 2 월 24 일 연세대학교 대학원 보건학 석사 학위 취득 2014 년 2 월 24 일 연세대학교 대학원 보건학 박사 학위 취득
강봉희	전공	신경과(신경과학(운동성질환),보톡스)
	약력	2004 년 2 월 20 일 단국대학교 의학 학사 졸업 2009 년 2 월 20 일 울산대학교 대학원 의학석사 학위 취득 2016 년 8 월 24 일 단국대학교 대학원 의학박사 학위 취득

의과대학 : 인사동정

보직발령

박우성	보직	의료원장
	약력	1983 년 서울대학교 의학 학사 졸업 1988 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원 의학 석사 학위 취득 1992 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원 의학 박사 학위 취득
김도형	보직	졸업준비실장
	약력	1998 년 단국대학교 의학과 졸업 2002 년 단국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내과 석사 학위 취득 2009 년 단국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내과 내과학 박사 학위 취득
김석배	보직	학생상담실장 (학생지도위원회 위원장)
	약력	1996 년 단국대학교 의학과 졸업 2000 년 단국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내과 석사 학위 취득 2003 년 단국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내과 내과학 박사 학위 취득
김홍자	보직	통합교육과정위원회 위원장
	약력	1992 년 부산대학교 의학과 졸업 1999 년 울산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석사 학위 취득 2002 년 울산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내과학 박사 학위 취득

의과대학 : 인사동정

조교소개

의예과

김혜영 조교 (2017.07.01. 발령 / 내선 : 041-529-6036) 의학교육실 담당

박지언 조교 (2016.10.01. 발령 / 내선 : 041-550-3851) 의예과 및 대학원 담당

의학과

김주희 조교 (2016.10.01. 발령 / 내선 : 041-550-3856) 본과 1학년, 3학년 교육 담당

주연희 조교 (2017.05.01. 발령 / 내선 : 041-550-3056) 본과 2학년 통합교육 담당

고형휘 조교 (2017.03.01. 발령 / 내선 : 041-550-3850) 본과 4학년 교육 담당

이보람 조교 (2016.09.01. 발령 / 내선 : 041-550-3858) OSCE, CPX 담당



사진과 실물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의과대학 : 학교행사

2017학년도 입학식



우리 의과대학 신입생 42명(전체 2,526명)이 2월 17일 10시에 체육관 주경기장에서 입학식을 통해 단국인으로서 첫 출발을 알렸다. 이날 입학식 신입생들은 각 학과로 이동해 교내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하여 개강 후 본격적으로 강의실에서 만날 단과대학장 및 교수, 학과선배들과 미리 만나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2017학년도 신입생 연합엔티



우리 의과대학에서는 3월 17일~18일에 걸쳐 용인 양지파인리조트에서 신입생 연합엔티를 진행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재학생 70명, 신입생 37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재일 학장, 지영구 부학장, 이영일 의예과장 외 10명의 교수가 참석하여 입학 축하했으며 레크레이션, 교수와 신입생과의 짧은 담소 및 단체사진 촬영 등으로 행사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2017학년도 졸업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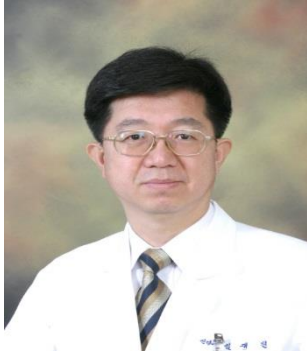
우리 의과대학 졸업생 43명(전체 2,390명)의 봄 학위수여식이 2월 23일 11시 30분에 의과대학 의학관 118-01호에서 진행되었다. 이날 졸업식은 송일한 의학과장의 학사보고로 시작하였으며, 김재일 학장은 “학생들에게 훌륭한 의사가 되기 위해서 이제까지 해 왔던 것처럼 열심히 노력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화이트코트 세레모니



우리 의과대학 3학년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화이트코트 세레모니가 3월 23일 17시 30분에 의과대학 대강당에서 진행되었다. 이 행사는 병원으로 실습을 나가게 되는 3학년 학생들에게 학부모가 직접 흰가운을 입혀주고, 의사가 되는 첫걸음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김수복 부총장, 조종태 병원부원장, 김재일 학장, 의과대학교수, 학부모, 3학년 재학생 등 100여명이 참석하였다.

교수동정 : 대외활동



<대한안신경의학회 제4대 회장 취임>

의과대학 김재일 학장이 대한안신경의학회 제4대 회장에 취임하였다. 임기는 2년으로 2017년 5월부터 2019년 4월까지이다.

대한안신경의학회는 신경안과학 분야의 연구자들이 다양한 경험과 아이디어를 공유해 최선의 치료방법을 연구하는 학회로, 연구자 간 교류와 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2010년에 설립됐다.



<제24회 광전자 및 광통신 학술회의 우수논문상 수상>

의예과 안진철 교수 연구팀이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부산 해운대 한화리조트에서 진행된 '제24회 광전자 및 광통신 학술회의'에서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논문 주제는 'Effects of low level light therapy on dry eye syndrome in vivo' 로 저출력의 LED광원이 안구 건조증에 탁월한 효과가 있음을 동물 실험 모델에서 확인한 실험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연구는 안 교수 연구팀과 조경진 교수(의학과-안과)가 공동으로 연구한 결과로 안구건조증 광선치료기기 개발 산업체에서 큰 관심을 표한 만큼 산업체로의 기술이전이 기대되고 있다.

의학레이저연구센터 소장을 맡고 있는 안진철 교수는 저출력레이저 및 LED 광원을 이용한 생체 활성 기전 및 임상 응용 연구를 수행 하고 있으며, 2014년에 중소기업청장 표창, 2013년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표창, 2016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 등을 수상한 바 있다.

교수동정 : 대외활동

〈바이로큐어(단국대 교외벤처) : 미국 모핏암센타와 공동연구 진행〉



의과학과 김만복 교수가 대표로 있는 단국대 교외벤처 기업인 바이로큐어(Virocure)는 최근 미국 University of South Florida (USF) 대학에서 연계하고 있는 Tampa Bay Technology Incubator (TBTI) 프로그램에 선정되어 교내에 있는 Research Innovation park에 입주한다고 하였다.

말기 전립선암 환자를 겨냥한 자체 발굴한 야생형 항암바이러스(Oncolytic virus)의 미국 내 임상시험 적용 논의를 위한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USF 대학차원에서 입주기업육성을 위한 투자 유치등 적극적인 보육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대학캠퍼스 내에 있는 모핏암센타와 활발한 공동연구도 기대해 볼 수 있다. 모핏암센타는 주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비영리재단 암센타로서 US News 분석에 따르면 미국 암센터병원 6위에 해당하며, 미국 NCI(국립암연구소) 지정병원이다.

김만복 교수는 "모핏 암센타소속 비뇨기과 교수님들과 공동연구를 계획하고 있으며, 바이로큐어 항암바이러스로 전립선암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해당 교수진은 치료제가 없는 말기암환자에서 바이로큐어 항암바이러스의 잠재력을 보고 임상제안을 했다"고 했다. 미국임상 시점은 국내임상에 돌입한 이후쯤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향후 텀파 지역 VC 투자유치 등을 통해 미국내에서 안정적으로 항암바이러스 혁신신약 개발을 계획한다"고도 강조했다. 미국에서 전립선암은 남성암발생율 1위 암종으로서 재발암에 대한 적절한 치료법이 부족하여 새로운 항암치료법에 대한 의학적미충족수요(medical unmet needs)가 큰 부분이다.

교수동정 : 대외활동



〈제27회 과학기술우수논문상 수상〉

가정의학과 정유석 교수가 7월 7일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민국과학기술연차대회에서 '제27회과학기술우수 논문상'을 수상하였다.

이 상은 매년 국내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 중 소속 학회에서 우수논문 1편을 추천 받아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에서 최종 심사해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과학기술 분야별 총 387개 학회가 참여했으며,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에서 주최하고 미래창조과학부가 후원했다.



〈제33차 의학교육학술대회 발표〉

가정의학과 박일환 교수가 제 33차 의학교육학술대회에서 임상실습 전 의과대학생의 의료커뮤니케이션 교육을 위한 효과적 교수 학습방법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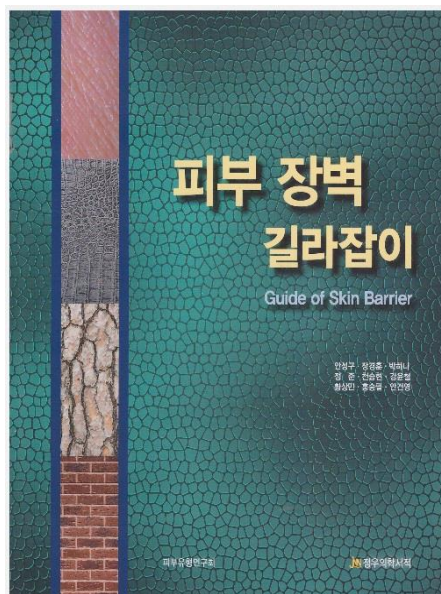
의학교육학술대회는 6월1일부터 3일까지 대전 컨벤션 센터에서 진행되었다.

교수동정 : 대외활동



〈제25회 기초의학 학술대회 발표〉

기생충학교실 서민 교수가 6월 30일 그랜드 힐튼호텔에서 열린 제25회 기초의학 학술대회에서 Historical Details about the Meat Consumption Pattern and Taeniasis during Joseon Period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신간공제 발간 '피부장벽 길라잡이'〉

피부과학교실 홍승필 교수가 6월 신간공제를 발간하였다.

‘피부장벽 길라잡이’(정우의학 서적)는 다양한 그림과 표를 통해 전문적이고 어려운 피부장벽에 대해서 많은 관련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로 피부유형연구회에서 발간되었다.

의학과 피부과학교실 홍승필 조교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피부유형에 관심을 갖고 피부유형연구회 활동을 통해 본 저자의 공저자로 참여하였다.

교수동정 : 연구년인사

김학림 부교수
(약리학 교실)

안녕하세요? 약리학 교실의 김학림입니다. 의과대학 교수님들께 따로 인사드리지 못하고 연구년을 미국에서 보내게 되었는데, 의과대학 소식지를 통해서 늦게나마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봄학기부터 미국 텍사스 댈러스에 위치한 Southern Methodist University (SMU)에서 연구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SMU는 아름다운 캠퍼스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부시 대통령 기념 도서관이 위치해 있는 학부 중심의 소규모 사립대학입니다. 학교가 위치한 댈러스는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당한 곳으로 많이 알려져 있으며 추신수 선수가 뛰고 있는 Texas rangers의 홈구장이 위치한 남부의 대도시 입니다. 아울러 댈러스는 중부표준시를 쓰고 지역적으로 중간쯤에 위치해 있어 미국내 다른 지역으로 이동이 매우 쉬워서 미국투어에 뛰고 있는 많은 골퍼들이 살고 있는 곳이라고도 합니다.



현재 소속된 연구실은 공과대학 소속으로 생물학적 응용을 위한 microbiorobotics, nano/microfluidics, and nanopore technologies를 이용한 연구를 하는 실험실입니다. 여러 연구과제중에서 특히 전자기장을 이용하여 microbiorobot를 조종하고 장차 이를 혈관에 적용하고자 하는 연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혈관모델을 이용한 연구와 전자파 연구를 했었기 때문에 흥미롭게 참여하고 있으나 이곳은 주로 공학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접근하다 보니 생소하게 느껴집니다. 아울러 salmonella에서 flagella를 분리하여 재조합 한 후 이를 nanoscale sensing devices를 만들려는 연구에도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교수동정 : 연구년인사

최한주 부교수
(응급의학과 교실)



안녕하세요. 의과대학 응급의학교실 부교수 최한주입니다. 저는 2017년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단기연수의 기회를 받아 현재 미국에 있습니다. 9년여 대학과 병원에서 쏟은 열정을 보상 받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새삼 느끼고 있는 요즈음입니다.

제 연수지는 미네소타 주의 최대 도시, 미니애폴리스에 위치한 University of Minnesota, East Bank Hospital, Emergency Center입니다. 전후 1955년, 낙후된 우리나라의 재건에 6년여의 교육기부를 통하여 기여한 소위 '미네소타 프로젝트'로 한국과도 인연이 있는 미네소타 대학은 5개의 캠퍼스를 갖고 있는 큰 주립대학입니다. 의과대학 및 부속병원도 지역의료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Twin cities로 불리는 세인트폴에 의과대학을 두고 있으며 4개 정도의 대형병원과 함께 많은 부속병원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큰 기관입니다. 응급의료의 측면에서도 Twin cities에 각각 level 1 trauma center를 운영하고 있으며 의학교육, 고압산소치료, 응급의료체계, 중환자관리 등에 특화된 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구기간이 더 길었다면 실험을 포함한 연구활동에 욕심이 있었으나 제게 주어진 여건에 따라 실제적인 미국의 응급의료체계, 환자관리, 응급의료 시스템 구축에 대한 직간접적인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과 안전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저도 미국에서 기관의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9월에 다시 뵙겠습니다.

의학교육 : 단국칼럼

인공지능 시대,

강의 중심의 의과대학 교육이 유효할 것인가?

채유미 부교수

(의학교육학교실)



지난 6월 1일부터 3일간 제33차 의학교육학술대회에서 [미래 의학 교육과 인공지능]을 주제로 의학교육의 미래와 인공지능시대에 의사에게 요구되는 능력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찰이 있었다. 인간에게 쉬운 것은 컴퓨터에게 어렵고 인간에게 어려운 것은 컴퓨터에게 쉬운 모라 베크 역설이 있다.

예를 들어 사람이 배우기 어려운 체스나 바둑은 인공지능이 따라할 수 있지만, 자연스럽게 걷거나 뛰는 활동은 구현하기 어렵다.

의사의 업무에는 어떤 역설이 존재할까? 최신 저널, 최신 의학지식을 통합하여 진단하고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어쩌면 컴퓨터에게 더 쉬울 수 있다. 그러나 의사가 직접 행하는 문진, 신체 진찰, 촉진, 타진 등의 행위는 오히려 컴퓨터가 따라하기 매우 어려운(혹은 불가능한) 영역일 수 있다. 인간의 감성을 이해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일 것이다. 윤리적인 문제는 또 어떠한가?

인공지능 시대에 일자리는 단순 노동/극도의 창의적 지식노동으로 양극화 경향을 보일 것이며, 의사의 직무는 이 양극단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인공지능 시대의 교육은 상상력과 창의력, 질문할 수 있는 능력, 경쟁보다는 협업, 데이터를 다루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주요하며, 의사됨에 있어서는 직업전문성, 리더십, 연구능력, 공감, 호기심, 의사소통 능력, 팀워크 무엇보다 강조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해외의 우수 의학대학은 인간적인 의사 양성(포트폴리오 훈련, 멘토십 프로그램,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학생들과의 협업 수업 등), 조기임상노출(본과 1학년부터 임상에 노출), 학생주도학습(가상환자 사례 학습), 지역사회 의의료문제 등의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건양대의 의사소통 역량 강화를 위한 인문의학교육과정 확대, 인제대학교의 통합교육과정 개선, 자기계발과 성찰을 위한 포트폴리오 적용 등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다. 변화하는 시대에 토론과 질문이 생생한 수업을 우리는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일 것이다.

의학교육 : 단국칼럼

의과대학 소식지의 필요성과 발전 방향 구상

홍승필 조교수
(피부과학교실)



우리 학교에도 작년부터 의학교육실이 생기면서 의과대학 소식지를 발간하기 시작하였다. 작년에 1호, 올해에는 이번 호를 포함하여 2호로 총 3호가 발간되었다. 학교 구성원들 중 학교소식지에 존재를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학교 발전의 측면에서 또 하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필자가 이번 호부터 학교소식지 편집 일을 맡게 되어 영광스러움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중이다.

의과대학은 타 대학에 비해서 큰 규모를 갖고 있기도 하고, 부속병원이라는 전문적인 기관과 한 몸처럼 얹혀있어서 매우 세분화된 전문 집단들이 서로의 역할을 하는 복잡한 구성을 보인다. 기초 의학분야와 임상 의사들로 구성된 교수진과 예과 본과로 나뉘어 6년이라는 비교적 긴 기간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행정인력과 각 교실의 조교와 대학원생/연구원들이 우리 학교의 주된 식구들이다. 여기에 학생들이 졸업 후에도 동문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학교와 연결되며 각종 모임과 지원사업을 통해 끈끈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고 의과대학을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 역시 학교 소식을 궁금해 하는 넓은 의미의 학교 구성원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러한 구성원들이 학교의 운영 상황과 각 구성원의 소식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알 수 있는 통합된 소식지를 발간하는 것이 학교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필자를 포함해서 우리 구성원들이 각자의 일에 몰두한 나머지 학교 돌아가는 일에 좀 무관심한 측면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아직 본 소식지의 내용이나 수준도 높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듯이 조금씩 관심을 가져주는 분들이 늘어나고 내용이 충실해 진다면 5-10년 후에는 '꽤 볼만한 녀석'이 되어 있을 것으로 믿는다. 현재의 소식지는 우리의 현재 모습을 남기는 타임캡슐 같다고 볼 수도 있다. 100년 뒤, 누군가가 이 소식지를 통해 단국대학교 의과대학의 100년전 모습을 보고 있을 지 모른다. 아무튼 작은 것들이 모여 우리 학교의 다양성을 높여줄 것으로 생각한다.

의학교육 : 주요소식

의학교육실

의학교육실에서는 교수와 학생의 교육적 측면 발전을 위해 조사, 평가, 보완, 피드백 등을 통해 더 나은 양질의 교육 제공 및 학생의 학업성취도 고취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교수와 학생, 각각의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시너지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

1. 시험문항분석을 하여 학생평가의 질적 수준을 향상한다.

시험문항의 난이도 및 분별도 분석 결과를 교과 담당교수에게 전달하여 시험문항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2017 년 1 학기에 총 30 과목을 문항 분석하였다,

2. 시험성적분포도 공개를 통하여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고취시킨다.

의예과 1 학년부터 본과 4 학년 전체 교과목 중 OMR 로 성적 산출한 교과목 대상으로 2017 년 1 학기에 총 30 과목의 성적분포도가 공개되었다.

3. 임상실습 만족도 및 학습달성도를 조사하여 양질의 교육을 제공한다.

본과 3 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임상실습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및 개인의 학습 달성도를 파악하는 조사이다. 모바일 설문조사로 실시하고 있으며 2017 년 하반기에 본과 4 학년까지 대상을 확대하였다. 조사 후 학생 및 교수와 평가회의를 통하여 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4. 통합교육 강의평가 결과 피드백을 통하여 양질의 교육을 제공한다.

본과 2 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블록강의 종료 후 모바일 설문조사를 통하여 실시되고 있다. 강의평가회의 결과를 각 교과의 책임교수 및 교과 담당교수에게 전달하여 강의개선 및 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5. 월례회의를 통하여 의학교육실 업무를 점검한다.

의학교육실 월례회의에서 진행사항 보고 및 논의안건을 통하여 의학교육실 업무를 점검한다.

6. 지침(메뉴얼)을 작성하여 교수 및 조교의 고충과 불만을 해소한다.

7. 교수 대상 특강을 통하여 교수역량 강화에 기여한다.

의과대학 교수 대상 2017 년 상반기 총 2 회 특강이 있었으며, 하반기에 2 회 이상 개최될 예정이다.

8. 의과대학 소식지 제작을 통하여 홍보한다.

년 4 회제작을 목표로 누적발행 3 호를 발간하였다.

의학교육 : 교육안내

지난교육

1. 임상실습개선을 위한 특강



지난 5월 30일 오후 5시 단국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부산대학교 이상엽 교수의 외부초청 '임상실습 교육과정, 개선시도경험' 특강이 개최되었다. 의과대학 본과 3,4학년의 병원 임상 실습 방법 및 평가 방안 개선을 목적으로 기획 된 본 강의에 약 35명 내외의 교수진이 참석하였으며, 종료 후 질의 응답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실제적인 사례 중심의 강의였기에 임상실습 개선 아이디어를 얻기에 적절하였다는 강의평가가 있었다. 본 특강이 특정 대학의 사례 중심 강의였다면, 추후에는 단국대 병원 각 과의 개별적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계획을 수립하는 워크숍 형태의 좀 더 효율적이고 유익한 강의를 개최 할 전망이다.

2. PBL 워크숍

지난 8월 30일 오후 5시 30분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437-2호에서 PBL위원회 이미정 위원장의 주관으로 'PBL 모듈개발 및 평가' 워크숍이 개최되었다.

2017년 본과 3학년 하반기 PBL수업에 사용할 새로운 모듈개발을 목적으로 한 본 워크숍에 약 18명 내외의 교수진이 참석하였으며 의학교육학교실 채유미 부교수가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두 그룹으로 나뉘어 진행된 본 워크숍은 상호 활발한 피드백과 함께 지식을 공유하는 유익한 기회를 제공하였다.

의학교육 : 교육안내

향후교육

1. 임상실습에서의 학생역량 평가방안을 위한 특강



일시 : 2017년 9월 20일(수) pm 5시 30분~7시

장소 : 의과대학 크리스강의실 224호

대상 : 의과대학 교수

강사 : 인제대학교 윤보영교수

내용 : 역량바탕의학 교육에 따른 임상실습과 포트폴리오평가

* 간단한 다과가 제공 될 예정이오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외부교육 : 서울대 의학교육 연수원워크숍

1. 제5차 집단 의사결정 촉진법 워크숍 - 9월 27일(수) 10:00~17:20

2. 제1차 자기주도(자기조절)학습 촉진 워크숍 - 11월 22일(수) 10:00~17:00

3. 제4차 공감과 소통의 회의기법 워크숍

일시 : 2017년 12월 21일(목) 10시~17시

장소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국제관

대상 : 전국 보건의료인 총 30명

4. 제114차 전국의대 신임교수 워크숍

일시 : 2018년 1월 11일(목)~12일(금) 9시 30분~17시 20분

장소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국제관

대상 : 전국 의과대학 신임교수 총 30명

학사일정

상반기

2017년 01월

01월 06일 ~ 01월 07일 : 국가고시 (잠실고)
01월 31일 : 본과 3학년 1학기 개강

2017년 02월

02월 06일 : 본과 2, 4학년 1학기 개강
02월 11일 : 본과 4학년 임상종합평가2 내과
02월 13일 : 본과 1학년 1학기 개강
02월 17일 : 입학식
02월 23일 : 졸업식
02월 25일 : 본과 4학년 임상종합평가2 외과

2017년 03월

03월 18일 : 본과 4학년 OSCE/CPX 시험

2017년 04월

04월 03일 ~ 04월 07일 : 스터디데이 (재시기간)

2017년 05월

05월 19일 ~ 05월 20일 :
본과 4학년 9개대학 1차 모의고사

2017년 06월

06월 12일 ~ 06월 16일 : 스터디데이 (재시기간)
06월 17일 : 본과 3학년 OSCE/CPX 시험

하반기

2017년 07월

07월 07일 ~ 07월 08일 :
본과 4학년 9개대학 2차 모의고사
07월 17일 : 본과 2학년 2학기 개강.
07월 24일 : 본과 3, 4학년 2학기 개강.

2017년 08월

08월 07일 : 본과 1학년 2학기 개강
08월 28일 : 예과 2학기 개강.
08월 31일 ~ 09월 01일 :
본과 3,4학년 컨소시엄 1차 모의고사

2017년 09월

09월 11일 ~ 09월 15일 : 스터디데이 (재시기간)

2017년 10월

10월 14일 ~ 10월 15일 :
본과 4학년 9개대학 3차 모의고사

2017년 11월

11월 11일 ~ 11월 12일 :
본과 4학년 9개대학 4차 모의고사
11월 30일 ~ 12월 01일 :
본과 3,4학년 컨소시엄 2차모의고사

2017년 12월

12월 18일 ~ 12월 22일 : 스터디데이 (재시기간)

학생소식 : 기획기사

세계 여러 나라의 의학교육 탐방기- 1편 프랑스

의학기자단 : 박정현, 이서윤
(의학과 3학년)



대부분의 의대생들이 공감하듯 대한민국에서 의대를 다닌다는 것은 마치 경주마가 되는 것과 같다. 오직 경주에서 빨리 달리는 것만 중요하다. 바쁜 훈련 일정으로 인해 주위를 둘러보기도 힘들고, 둘러보지 않아도 될 것만 같은 유혹에 빠지기도 쉽다.

하지만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사회에서 의대생에게 요구하는 것이 오직 의학 지식만이 아님을 우린 이미 알고 있다. 그럼 우린 어디로 눈을 돌려봐야 할까? 세계 각국에서 고군분투 하고 있을 다른 나라 의대생들은 무엇을 어떻게 배우고 살아가는지 알아본다면 배울 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학생 기자단으로서 세계 여러 나라들의 의학 교육에 대한 특집 기사를 쓰게 되었다. 이번 호에서 다룰 프랑스를 시작으로 1년 동안 여러나라의 의학 교육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프랑스의 의학교육 과정에는 크게1, 2, 3기의 과정이 있다.

1기 과정은DFGSM(Diplôme de Formation Générale en Sciences Médicales, en Sciences pharmaceutiques, en Sciences odontologiques)으로 1학년과2학년, 총2년에 걸쳐서 진행된다.

1학년(PACES - Première Année Commune des Études de Santé) 과정에서는 의학(물리치료, 작업요법, 정신운동 포함), 치의학, 약학, 산파술 총4개의 전공을 다룬다. 1학기에는 기초과학(화학, 생물학, 발생학, 생물조직학 등)을 주로 배운다. 학기말에 보는1차 통과시험에서85%의 학생들은 통과되어 계속 과정을 들을 수 있다. 그러나 나머지15%는 다른 학부과정으로 전환하게 된다.

학생소식 : 기획기사

2학기에는 약리학, 인문 사회과학(보건, 사회, 인류) 등의 수업을 듣는다. 또한 의학, 약학, 치의학, 산파 중 1개 이상의 전공을 선택하여 학기 말2차 통과시험을 치뤄야 하는데, 각 통과시험은 석차에 의해 진급 여부가 결정된다. 1학년 과정에서 낙제할 경우 단 한 번만 재등록 할 수 있다.

2학년(PCEM 2 - Premier Cycle des Etudes Médicales / DFGSM 2-Diplôme de Formation Générale en Sciences Médicales) 과정은 DFGSM을 취득하기 위한 심화 과정으로 볼 수 있으며, 학생들은 의무적으로 병원에서4주간 연수를 받도록 되어있다. 2학년 역시 시험을 통과해야만2기 과정으로 진급할 수 있다.

프랑스 의학교육의1기 과정은 진입 장벽이 낮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 하다. 모든 대학이 국립인 프랑스에서는 대학입학 자격시험인 바칼로레아를 통과하면 누구든 의과대학에 입학할 수 있다. 그러나2기 과정으로의 진급 시험을 통과하는 학생은 오직10% 정도이고, 학생 수는5,900명으로 제한되어 있다. 단 한 번의 재등록 기회가 주어지고 여기서도 낙제할 경우 다른 길을 찾아야 한다. 따라서2기 과정으로 진급하기 위한 학원이나 고액 과외가 등장했고, 1년간 학원을 다닌 후 의대에 입학하는 현상도 벌어지고 있다.

2기 과정(DCEM)은 총4년간 진행되며 1년의 수업(DCEM1)과3년의 실습(DCEM2, 3, 4)으로 이루어진다.

DCEM1에서는1기 과정에서 공부한 내용을 심화 시키며 더불어 징후학, 영상의학, 외국어, 전산, 법 등의 수업을 듣게 된다.

DCEM2, 3, 4에선 실습의(Externat)로서 대학병원에 소속되어 여러 분과에서 수련 받는다. 우리나라와 달리 학생들도 매달 약124~270유로(2011년 기준)의 월급을 받는다. 각 학생마다 인턴장 및 의사의 지도 하에 일종의 계약직으로 일하고, 매 학년 말에는 연수와 의료보조활동에 대해 평가하는 시험을 치러야 한다.

학생소식 : 기획기사

11개 전공리스트

- 마취 - 소생학과
- 의학생물학과
- 부인과
- 산부인과
- 일반의학과
- 노동(산업)의학
- 소아과
- 정신의학과
- 공중보건학과

■ 외과 전공

- 일반외과
- 신경외과
- 안과
- 이비인후과
- 구강학

■ 의학 전공

- 해부학, 세포병리학
- 심장 및 혈관질환학
- 피부과, 성병학
- 소화기학, 간장학
- 유전의학
- 혈액학
- 내과학
- 핵의학
- 생리학
- 신장학
- 신경학
- 종양학
- 호흡기학
- 영상의학
- 류머티스학

DCEM 4에는ECN(Examen Classant National / Épreuves Classantes Nationales)으로 불리는 시험을 통과해야만3기 과정(Internat)으로 진급할 수 있다.

. 시험 결과에 따라 학생들은 병원과 전공, 그리고6개월간 연수를 받을 분과를 선택한다. 전공의 경우 크게11개의 전공으로 왼쪽과 같이 나누어진다.

3기 과정(Internat)은 우리나라의 전공의 과정과 유사하다. 의대생들은 ECN 시험 결과에 따라 병원과, 전공, 그리고 분과를 선택할 수 있고 크게는 일반의와 전문의 과정으로 나눌 수 있다. 일반의를 취득하기 위해 기본3년, 특정 전문의를 취득하기 위해서는4~5년이 걸린다. DES를 받기 위한 요건으로6개월 간의 연수 과정을 모두 통과해야 하며, 이론 수업 및 실습 그리고 졸업 논문을 준비해야 한다. 3기 과정을 마친 후, DES 졸업 논문을 통과하면 해당 전공의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국가의사학위를 수여 받는다. 학위를 수여 받은 후에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개원의와, 봉직의, 교수로서 생활하게 된다.

프랑스의 일반의는 의무적으로 추가 교육과정을 거쳐야만 한다는 점이 우리나라와 다르다. 이는1차 의료를 강화하겠다는 최근 프랑스 의료정책에서 기인한 것이다. 갈수록 늘어나는 의료비용을 줄이기 위해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 전문의의 숫자를 제한하고, 대신 일반의의 교육을 강화해 1차 진료의 중심에 두겠다는 의도다. 우리나라 가정의학과 의사의 역할을 프랑스에서는 일반의가 담당하게 되는 셈이다.

학생소식 : 기획기사

이것으로 프랑스의 의학교육에 대해 알아보았다. 프랑스 의학교육의 가장 큰 특징은 입학이 쉽고 졸업이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에 비해 임상 실습에 더 많은 시간이 할애되고 학생이지만 수당을 받는다. 졸업 후 일반의로 일하기 위해서 의무 교육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도 우리나라와 다르다. 자유, 평등, 박애 정신의 최전선에 있다고 평가되는 프랑스 의학교육에서 우리가 배울 점은 무엇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1기 과정 - DFGSM	
1학년 (PACEs) * PACES 과정은 낙제할 경우 1번만 재등록가능	1학기 : 기초과학 학기말에 1차 통과시험 2학기 : 의학, 약학, 치의학, 산파, 약리학, 인문 사회과학(보건, 사회, 인류) 학기말에 2차 통과시험
2학년 (PCEM2/DFGSM2)	DFGSM취득을 위한 심화과정, 의무적으로 병원에서 4주간 연수 시험 통과해야 2기 과정으로 진급
2기 과정 - DCEM	
DCEM 1	1기 과정에서 공부한 내용 심화 징후학, 영상의학, 외국어, 전산법
DCEM 2, 3, 4 (Externat)	3년 동안 병원의 여러 분과에서 연수 매 학년 말 시험 어시스턴스로서 매달 수당 지급 DCEM 4에는 ECN 응시, 통과 후 3기 과정으로 진급, 전공, 분과 선택
3기 과정 - Internat	
	Senior의 책임 하에 병원에서 근무 전공에 관한 본격적인 수련, 대부분 실습 일반의 취득에 기본 3년, 특정 전문의 취득에 4~5년 소요 3기 과정을 마치고 DES(Diplôme d'Études Spécialisées) 졸업논문을 통과하면 국가의사학위 수여

학생소식 : 동아리소식

엄청난 공부량에 시달리며 끝없는 시험과 씨름하는 의과대학 학생들에게 꽃 피는 5월은 조금이나마 활력소가 되는 달일 것이다. 바로 '동아리 봄 공연'이 열리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꽃 피듯 만개하는 동아리 공연들의 향연 속에서 의과대학 학생들은 즐거움을 얻곤 한다. 공연을 하는 학생들은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소소한 일탈감을 느끼고 그것은 곧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쳤을 때의 쾌감과 보람으로 귀결된다. 다른 학생들은 가까운 곳에서 수준급의 공연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연에 참가하는 동기 혹은 선후배의 색다른 모습을 보며 재밌는 추억을 만들 수 있다. 이 과정 속에서 동기들, 그리고 선후배 간의 사이가 더욱 돈독해지고 힘든 의대생활 속 따뜻하고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곤 한다.

올 봄에도 역시 모든 동아리 공연들이 성황리에 끝났다. 이번에 치뤄진 봄 공연 소식을 간단한 동아리 소개와 함께 전하고자 한다.

단국대학교 의과대학에는 5개의 공연 동아리가 존재한다. 오케스트라 동아리 'DMPO', 합창 동아리 '못 갇춘 마디', 연극 동아리 '백지대본', 밴드 동아리 '카디오스', 그리고 풍물 동아리 '한마당'이다. 가을에 열리는 정기공연에 앞서 5월에 열리는 봄 공연은 주로 '신입생'들이 주인공으로, 너무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은 공연이다.

봄 공연의 서막을 연 동아리는 바로 연극 동아리 '백지대본'으로 5월 23일과 24일 이틀에 걸쳐 연극 '30일간의 야유회'를 선보였다. 여섯 명의 사회유명인사와 여섯 명의 모범죄수들의 무인도 표류 생활을 해학적으로 그린 이 연극은 관객들에게 끝없는 웃음과 감동을 선사했다. 가을에 열리는 정기공연에서는 본과 1학년 학생들이 무대에 선다.

이어서 5월 25일에는 밴드 동아리인 '카디오스'의 공연이 펼쳐졌다. 심장을 뜻하는 'cardio'에서 따온 이름에서부터 그들의 열정이 느껴진다. 흔히 알려진 가요나 팝송부터 시작해 락, 발라드, 어쿠스틱 등 다양한 장르를 선보였다. 이번 봄 공연은 의과대학 강당에서 열렸으나, 천안 아우리나 서울 홍대의 클럽 등 다양한 장소에서 공연이 펼쳐지니 이번 가을 공연 또한 기대된다.

학생소식 : 동아리소식

다음 날인 5월 26일에는 합창 동아리인 '못갓춘 마디'의 '작은 음악회'가 열렸다. 신입생들이 남여 혹은 남남듀엣을 이루어 노래와 춤을 선보였는데, 진지한 표정과 노래에 어울리지 않는 웃긴 울동은 작은 음악회의 전매특허이다. 더불어 환상적인 합창의 하모니는 관객들에게 감동을 자아냈다. 웃음과 감동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은 못갓춘 마디의 공연은 역시 가을에도 만나볼 수 있다.

동아리 봄 공연의 마지막을 장식한 풍물 동아리 '한마당'의 공연은 6월 2일에 의과대학 농구코트에서 펼쳐졌다. 신명나는 장단과 가락이 울려퍼지는 가운데, 한마당에서 준비한 인절미와 막걸리는 한껏 흥을 더욱 북돋았다. 야외에서 진행되고 전통 고사를 지내는 등 한마당만의 독특한 개성과 매력이 드러난 이번 공연을 끝으로, 축제와 같던 동아리 봄 공연 기간은 마침내 막을 내렸다.

오케스트라 동아리 'DMPO(Dankook Medical Philharmonic Orchestra)'의 경우는 공연 동아리 중에서 예외적으로 가을 정기공연만 진행한다. 대신 3월 중에 '향상 음악회'를 열어 신입생들은 혼자서, 나머지 재학생들은 앙상블로 무대에서 연주를 하고 지도교수님의 평가를 듣는 시간을 가진다. 한 번인 만큼 어떤 공연을 보여줄지, 이번 가을 정기공연이 크게 기대되는 바이다.